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인기드라마 '궁' 뮤지컬로 제작

윤은혜, 주지훈이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궁'이 뮤지컬로 제작돼 9월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에서 막을 올린다.

박소희 작가의 만화를 원작으로 2006년 방송된 드라마 '궁'은 평범한 여고생이 황태자와 정략결혼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 인기를 끌었다.

이번 공연은 드라마 '궁'의 제작사이기도 한 그룹에이트가 첫 번째로 제작한 뮤지컬로, 이 회사 송병준 대표와 인은아 작가 등 드라마 '궁'의 제작진이 다시 호흡을 맞춘다.

음악은 '궁' OST에 참여한 가수 하울이 맡았으며 연출은 뮤지컬 '헤어 스프레이', '라디오스타' 등의 김재성 연출이 맡았다.

손잡고 영화보기·찜질방 데이트하기·거리에서 떡볶이 먹기

"그런 연애 하고 싶다~"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박·진·희

"닭살 커플이라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하하."

지난 2일 오후 경기 용인 MBC 드라미아 촬영장에서 만난 박진희는 특유의 소탈한 웃음을 보여줬다. 그는 MBC 수목드라마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극본 김인영, 연출 김민식)에서 방송기자 이신영 역을 맡아 12살 연하의 천재 음악가 하민재(김범 분)와 닭살 커플 연기를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수위예요. 앞으로 민재와 목도리 하나를 같이 두르기 같은 것도 나와요. 만일 보기 어려우시면 손을 잔뜩 오그리고 보세요. 하하."

박진희는 처음에 민재와 나이 차가 너무 크게 나서 시놉시스에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촬영이 진행되면 될수록 감정적인 부분은 이성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특히 상대역인 김범이 생일 때 방한용품을 선물해줄 정도로 나이보다 어른스러운 면이 많아 편하게 연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가 12살 차이가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12살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공감대인 것 같아요. 물론 신영이가 일에서 성공한 골드미스이지만 일과 사랑은 다르잖아요. 사랑은 열

"작가와 연애 아이디어 나눠요 닭살 연기 진수 보여드리죠"

심히 한다고,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니깐. 아무리 성공해도 술 한잔 걸치면 모두 과거 사랑 이야기, 연애 이야기 등을 하잖아요. 우리 드라마는 그 부족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대 중반 미혼인 박진희는 이 때문에 신영이의 대사를 외우다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털어놨다.

"제가 늘 생각하던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다가 작가 선생님이 써준 것을 보면 '딱 이거다' 싶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았어요. 특히 편집이 돼 방송에는 못 나갔지만 '까꿍 변태'인 임창정 씨를 만난 뒤 대로변을 걸으며 했던 대사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같이 눈을 마주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게 주지 않는다면 그를 원하는 이 마음도 없애주세요'라는. 마음이 짠했어요."

박진희는 평소 배우들과도 자주 소통하는 김 작가에게 민재와 연애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연애를 한다면 어떤 데이트를 하고 싶으냐고 해서 손잡고 영화 보러 가기, 찜질방에서 데이트하기, 거리에서 떡볶이 먹기, 같이 명동 걷기 등등을 말했어요. 물론 이건 일상적인 데이트이지만 우리는 쉽게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작가님에게는 죄송했지만 그런 연애를 하고 싶다고 했죠. 아마 반영이 됐을 거예요."

이밖에 입이 돌아가는 구안와사의 증상에 대해 공부한 것도 작가와 공유했다고 한다.

박진희는 현재 '아결녀'의 시청률이 4-5%로 저조한 데 대해 "코믹한 요소가 많아 촬영할 때마다 스태프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해서 더 재미난 장면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진지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니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두살바기 '남이' 떴다

'별을 따다 줘' 정재훈 인기 폭발

"남이야 촬영가자~"며 여자 스태프가 안으러 오자 재훈이는 덥석 안겼다.

엄마와 동생이 옆에 있지만 개의치 않고 스태프의 품에 안겨 촬영장 안으로 들어간 재훈이는 이내 이 사람 저 사람의 귀여움을 한껏 받으며 연신 방긋방긋 웃었다. 촬영장의 집안 거실 세트 안 유모차에 태워진 재훈이를 보자 '할아버지' 이순재와 '할머니' 김지영도 예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생후 15개월, 12kg의 남자 아기 정재훈이 SBS TV 드라마 '별을 따다 줘' 제작진은 물론, 시청자들로부터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별을 따다 줘'의 주인공은 빨강 역의 최정원이지만,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면 바로 재훈이다.

사실 드라마의 1~4회에 등장한 아기는 재훈이가 아니다. 일란성 쌍둥이 동생 재헌이였다. 그런데 재헌이가 너무 우는 데다 도중에 아파서 재훈이로 교체된 것.

재훈이의 엄마 김혜원(31) 씨는 예쁜 두 아들의 사진을 인터

넷 카페에 올렸다가 제작진의 연락을 받았다.

"호기심도 있었고 애들한테 추억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중이 클 줄은 몰랐어요. 주인공과 늘 함께 나오니까 촬영 스케줄이 엄청나요."

촬영을 시작하면서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 두 아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엄청 화려한 세계인 것 같았는데 와보니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스태프가 등만 대면 어디서든 잠이 들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요즘은 저희가 그래요. (웃음) 오래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에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짐 싸들고 집에 가기도 했는데 남편이 약속해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요즘 광고 등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 이번 드라마 하고는 못할 것 같아요."

아기 출연자는 보조 출연자이기 때문에 일당으로 보수를 받는다. 김씨는 "한달 출연료로 500만 원 쯤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남이가 주인공 못지않게 사랑을 받으면서 김씨는 오해 아닌 오해도 받게 됐다. 아기를 너무 혹사시킨다는 비난을 받은 것. 그러나 너무 춥거나 열악한 환경, 아기의 표정이 잡히지 않는 장면 등에서는 인형으로 대체해 촬영하고 있다. 또 아기의 상태에 맞춰 배우들의 스케줄이 조정되고 있다.

재훈이는 이제 '재훈아'가 아니라 '남이야'라고 해야 돌아볼 정도로 극중 배역에 빠져(?) 있다. 거의 매일 촬영장에 오지만 한 번 열이 났을 뿐 아프지도 않고, 촬영장에서 순하게 잘 논다.

/연합뉴스